

## ‘전통과 첨단’의 조화 한국지성 600년…미래 인재의 산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대외협력처

### ■ 21세기가 요구하는 ‘새 선비 문화’ 창조

#### 설립 이념과 미션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에 설립된 조선조 국립 대학 성균관을 승계한 대한민국 유일의 민족정통 대학으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건학이념과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교시 아래 지혜와 예지를 지닌 성균지인(成均之人)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통하여 우리 대학은 인류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선비 문화’의 창조, 21세기 첨단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지성인 육성 등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웅비하기 위한 새로운 전통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다.

### ■ ‘Vision 2010’ 청사진 마련… 실천전략 수행 “박차”

#### 최근의 발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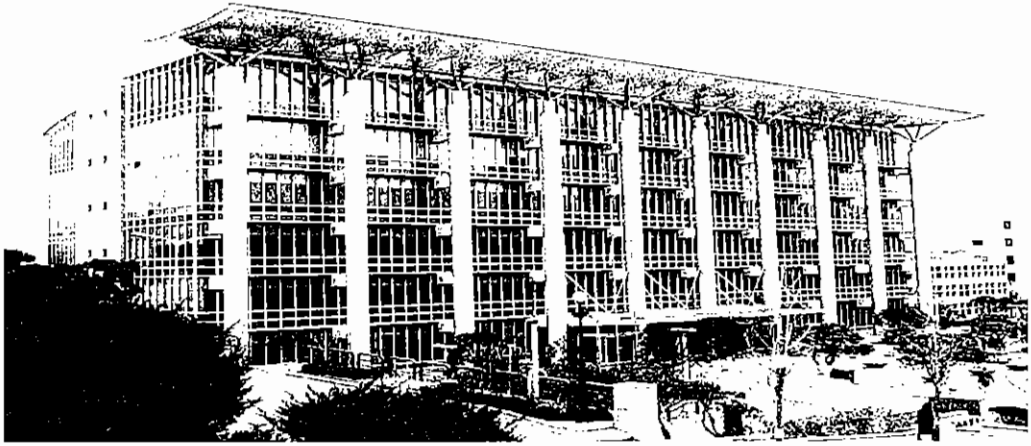
민족사와 함께 영욕을 같이해 온 우리 대학은 최

근 삼성재단을 영입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1997년 1년간의 작업 끝에 ‘첨단과 전통의 조화, 세계적인 학문연구의 요람’을 모토로 2010년에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인 ‘Vision 2010’ 계획을 완성하였고, 해마다 대학운영방침 공표와 경영평가제도 운용 등을 통해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발전계획을 완성하자마자 찾아온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학 자체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으로 600주년기념관, 의학관, 경영관, 종합연구동, 첨단 기숙사 등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건축한 교사(校舍) 면적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면적의 2/3에 육박하며(62,000평



▲ 600주년 기념관

→ 102,000평). 1996년 474명에 불과하던 교수 수가 현재는 986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대학이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5개 분야 세계수준 달성’ 특성화사업단 선정

인프라 구축이 발전전략의 하드웨어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특성화 정책’이다. 우리 대학은 2005년까지 10개 학문분야를 국내 최고수준으로, 2010년까지 5개 학문분야를 세계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특성화 정책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 1999년 4개 단위(경제학과, 경영전문대학원, 약학부, 기능성고분자연구팀), 2000년 4개 단위(동아시아학,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 기계공학부, 금속·재료공학부)를 특성화사업단으로 선정·육성하고 있다. 특성화사업단에는 교수 채용, 학생정원 배정, 시설계획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30억 원 이상의 특별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대학 특성화사업은 교육부의 BK21사업을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아시아학 메카’ 학술원 설립…최적 인프라 구비

우리 대학이 앞으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전통과 첨단’의 조화라는 비전에 근거하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된 동아시아학술원은 우리 대학의 전통적 강점분야인 동아시아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학내 각 학과에 산재한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인력을 하나로 조직하여 동아시아학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자체 내에 3개 연구소,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및 동아시아학 도서관(존경각)을 갖추고 있는 등 동아시아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경영전문대학원, 유구한 전통과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과 연구성과를 자랑하는 법과대학과 약학부, 신진 주자로 선두를 위협하고 있는 의과대학, 7개 BK21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문분야 등은 이미 국내 최고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IT, BT, NT 분야에 뛰어난 교수진을

확보하여 이들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학부제·복수전공·조기졸업 등 '학사 개혁' 성과

특성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사제도 개혁의 핵심은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이다. 학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전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학부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학사제도는 물론 교육과정까지 새롭게 편성하여 제도상 개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 연구생활 속에서 학부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학부제는 대학의 구조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정착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학문 분야간의 벽을 낮추고,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공 만족도를 제고하며,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보호 육성을 아울러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지원체제도 학부제의 취지에 맞추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학부제의 성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복수전공과 조기졸업이다. 21세기형 통합전공 인재(이를 '다산형 인재'라고 부름)를 배출하려는 학부제의 교육이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재학생 35%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으며, 6~7개 학기만 등록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학생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어 비야호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4년이 걸린다는 공식이 깨어지고 있다.

### 졸업생 품질인증 '3품제' 도입 효과 "톡톡"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또 다른 학사제도는 3품제이다.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졸

업생의 품질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졸업생 품질인증제도'를 발전전략의 하나로 채택하여 인성 함양, 국제화마인드, 정보능력 배양을 교육 목표로 하는 3품제를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학생의 기본적 자질 향상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졸업생의 경우 평균 700점의 토익점수를 취득하고 있으며, 90%이상이 컴퓨터관련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의 '성실성', '기본 직무수행능력의 우수성'이 가장 큰 강점으로 제시되어 3품제도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근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들은 본교생의 기본적 자질을 두고 "웬만하면 서류전형은 통과시킨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성과가 알려지면서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으며, 타 대학에서도 앞다투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3품제를 우수사례로 전파하면서 정보능력과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졸업 요건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교수업적 평가제' 연구력 증가 ... SCI 논문 수 "괄목"

교수부문의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교수채용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높은 연구업적 심사기준으로 능력 위주의 채용관행을 정착시켰으며, 우수 교수를 전략적으로 스카우트하는 특채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동일 대학 출신 교수비율 상한선을 60%로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교수사회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승진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승진 탈락률이 약 1/3에 이를 정도이다. 이는 대

학본부에서 제시한 승진을 위한 최소한의 논문실적을 적용하기보다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승진 기준을 상향 운영하는 등 교수들의 성숙된 자율의식에 기인한 결과이다. 그리고 교수 업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에 기초한 교수연봉제(성과급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해 교수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교수들의 연



▲ 은행잎을 형상화한 성균관대 상징 조형물

구력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력의 척도가 되는 국제과학논문색인(SCI)에 게재된 논문수가 1996년 92편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761편으로 8.3배 증가하여 국내 대학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 국책연구프로젝트 수행실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학의 연구력 수준을 보여주는 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6개), 선도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계기술에 도전하는 21세기프론티어연구단(3개), BK21 사업단(7개),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3개), 정보통신우수연구소(2개), 국가지정연구실(7개), 기술혁신센터, 게임기술개발지원센터, 경기의약연구센터 등이 국책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 ■ 대학비전 실현 구상

앞서 설명한 설립이념과 미션, 최근의 발전동향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대학

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와 구상을 밝히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첫째, 국내의 울타리를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에 눈높이를 맞추고자 한다. 국제적인 기준을 교육과 연구의 전범으로 삼고,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며, 외국의 명문대학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집중화와 전략적 특성화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한 분권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와 교육·연구단위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발전을 이룩해 나가고자 한다. 총장과 대학본부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을 활성화하고, 각 학문 분야와 교육·연구단위가 혁신의 주역이 되는 기풍을 진작함으로써 대학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셋째, 외형보다는 내실, 물량보다는 품질을 중시하여 대학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지고자 한다. 학생의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최근의 학문 동향과 환경 변화를 투영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도 개편하고, 전통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며, 교수와 학생의 유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 **123**